◇달라이 라마의 방한 문제와 맞물려 관심을 끌었던 영화 '쿤둔'.

사찰 문화행사 '자리매김'

2000 결산 – 불교문화

'오! 부처님' '도솔가' 등 창작 뮤지컬 잇달아

불교보컬 '도리도리' 탄생 '쿤둔' 등 영화 흥행 저조

음악협회 2곳 창립 기대만큼 활동 못해

올해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2000, 새로운 예술의 해', 불교문화계 역시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만큼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시도를 펼쳐 보인 한 해였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찰 문화행사가 양적·질적 면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자리로 정착되어 간다는 점이다. 이들 문화행사는 음악회, 전시회 등 초창기의 실험 단계에서 벗어나 다도시연, 시낭송회, 체험행사 등 보다 다채로운 방식으로 지역민들과 만나고 있다. 대형 사찰이나 도심 포교당뿐 아니라 작은 사찰에서도 이런 문화행사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연극계에선 대형 창작작품들이 잇달아 무대에 올라 모처럼 불자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4월 선보인 대구불교문화예술원의 창작 뮤지컬 '오! 부처님'을 비롯해 '도솔가·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창작오페라 '무명탑', '직지', 음악극 '진감' 등이 올 한해 무대에 오른 대표적 작품들. 형식면에서도 현대극, 불교창작음악과 연극을 혼합한 음악극, 음악과 무용, 그리고 연극을 혼합한 총체극 등 다양한 시도는 한국 연극계에 기여할 만한 성과를 낳았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문화활동은 활발했다. 미술, 음악, 사진, 무용 등 분야별 관련 사이트가 하나둘 문을 열면서 인터넷에서도 불교문화를 접할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진작가 김연숙 씨와 변명환 교수의 사진전은 인터넷에서도 함께 열려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았다.

전통을 현대적 코드로 재해석하는 작업은 분야가 따로 없었다. '직지체험축제' '청주 고인쇄출판박람회' '합주 한지문화제 2000' 등은 전통문화를 현대에 맞게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불교보컬그룹 '도리도리'의 탄생은 불교와는 낯설게 느껴졌던 대중음악계에 부다팝스라는 새로운 불교 대중 음악 장르를 선보였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각 종단과 사찰에서 선보인 불교 캐릭터 상품도 정적으로 보이기 쉬운 불교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국불교음악협회와 (사)불교음악협회의 창립은 새 천년 벽두부터 한국불교음악계를 달구었다. 불교음악계의 활성화를 기치로 출발한 두 단체는, 기대만큼의 활동을 보여주지는 못해 뜻 있는 불자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척박한 불교음악계에서 모임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서로를 고무시키고 또 조화를 이루며 운영해 나가느냐는 상식의 중실임을 확인하게 해 주었다.

이밖에 우리 전통설화인 바리데기 설화의 애니메이션 제작과 'CUP', '쿤둔' 등 티베트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 두 편의 국내 개봉도 관심을 끌었다. 월드컵 축구경기를 둘러싸고 티베트 불교 사원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다룬 'CUP'과 달라이 라마의 전기 영화 '쿤둔'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영상 포교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한국 관객과의 정서적 차이나 마케팅 소홀로 많은 관객과 만나지는 못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전시·공연 부문에서의 활발함에 비해 여전히 사진·문학·영화 등은 이렇다 할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공연 부문에서의 성과들도 순수하게 불교계 역량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오! 부처님' 외엔 찾기 힘들어 교계 여건 성숙과 내적 역량의 강화를 영원한 과제로 남겼다. 기존의 소재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불교의 세계관과 가치를 녹여낼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의 출현도 아쉬운 대목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전통춤 대중화 앞장서야죠"

승무 인간문화재 인정받은 정재만 교수

"승무를 출 수 있으면 다른 춤도 출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승무에는 한국의 춤사위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한국 무용가 정재만(숙명여대 교수·53) 씨가 13일 고 한성준·한영숙 선생의 맥을 잇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48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정 씨는 열 여덟 살 때 본격적으로 무용을 시작해 68년부터 고 한영숙 선생에게 승무·학무 등을 배웠고, 76년 승무 전수조교(현 전수교육보조자)로 인정받았다. 94년부터는 벽사춤아카데미(벽사는 한성준 선생의 호)를 설립해 벽사 무용주간 공연, 벽사춤 수련회 등의 활동을 통해 한성준·한영숙 선생의 춤맥을 잇고 있다.

"한성준 선생이 전통춤을 집대성했다면 한영숙 선생은 아름답게 승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고 밝힌 정 씨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전국적인 무료 강습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 무용인 승무는 예술성이 풍부하고 춤사위의 다양성, 사용되는 음악과 장단의 변화성, 장삼소매의 놀림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형태 등이 우리 전통 춤의 미학적 정수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은 경기·충청을 중심으로 한 한영숙류와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매방류가 문화재로 인정받아 전승되고 있다. 한성준 선생이 집대성해 '벽사류'라고도 불리는 한영숙류는 특히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한 발 한 발 내딛는 춤사위가 느리면서도 동작이 커 우아한 멋을 풍긴다.

이번에 정 씨가 한영숙류의 맥을 잇는 보유자로 인정받아 역시 같은 맥을 잇고 있는 이매주(53)씨, 이매방류의 이매방(74)씨를 포함해 승무 예능보유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권형진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은 정재만 씨. 정 씨는 한성준-한영숙 선생의 춤맥을 잇고 있다.

사찰의 사계 오롯이 담았다

이병윤 사진전 '이뭐꼬'

노을진 산사의 풍경, 불상, 탑, 사천왕상 등 이병윤(불교사진연합회장) 씨의 사진 속에는 항상 우리에게 낯익은 소재들이 등장한다. 그것들은 대부분 아름다움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망가진 모습으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다. 하지만 작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궁극은 불교 문화와 문화재의 초탈 원융한 아름다움이다.

10여 년간 불교 문화재를 렌즈에 담아온 작가가 6년만에 두 번째 개인전을 연다. 내년 1월 2~6일 서울 충무로 후지포토살롱에 이어 12~16일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 2층 갤러리에서 잇달아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려는 '아름다움'도 그 등안의 작업과 궤를 같이 한다. 전시 주제는 '불(佛)의 세계·이 뭐꼬'. 사찰의 사계를 담은 40여 점의 작품으로 영상 삼매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저마다의 느낌 하나만큼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는 이 씨의 소망이다. (02)2273-5480 권형진 기자

사이버 문화

목아박물관

불교조각 전시실 온듯

목아박물관(http://www.moka.or.kr/kd/home.htm)의 홈페이지를 찾아 불교조각의 향취에 젖어보자.

목아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코너는 전시실 안내다. 이 곳은 단순한 전시실 위치 소개 코너가 아니다. 전시실을 메우고 있는 불교조각 사진을 하나하나 제공하고 있어 직접 가보지 않아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유물관리실에 보관되어 있는 비공개 유물 및 자료 등 평소 볼 수 없었던 소장품 일부도 접할 수 있다.

목아박물관이 매달 개설하고 있는 문화학교 커리큘럼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미술강좌 코너에서는 불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에서부터 불상의 종류 및 모시는 전각, 재질에 따른 분류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수인, 육계·백호·삼도 등 불상의 형식, 불상의 옷 등에 대한 강좌도 개설되어 있다.

목아박물관이 위치한 여주는 불교, 예술 등 다양한 문화재가 많은 곳이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신륵사, 고달사지, 명성황후 생가, 영릉 도예촌 등 여주의 문화재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해 주변 문화재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고 있다.

또 영어판 서비스를 곁들여 외국인들도 쉽게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꾸민 것도 이 홈페이지의 장점 가운데 하나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문화소식

부다피아 웹카드 서비스

부다피아 카드나라가 27일 오픈, 다양한 불교 웹카드를 네티즌들에게 제공한다.

붓다뉴스·부다피아·마하몰·여시아문 등 4개 사이트에서 선보일 부다피아 카드나라에는 9종 54개의 이미지 카드가 마련되어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웹카드는 연꽃일러스트 모음, 동자카드, 법당단청 이미지 모음, 꽃살문 이미지 모음, 이병윤 사진, 부처일러스트 모음, 기타 불교일러스트 모음, 대행큰스님 법구 모음 등으로 분류되어 제공된다.

정비파 목판화전

조국의 산하와 사찰의 불상 일주문 등을 소재로 여러 차례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어온 정비파 씨의 다색목판화전이 1월 5~10일 부산 시청 전시실에서 열린다.

작가가 구도적 자세로 일도일각한 '일주탑' '경주 감은사' '도 운문사 금당암 석등' '지리산 이야기' 등 70여 점의 작품은 자연친화적인 정신세계를 담아 내며 보는 이들을 피안의 세계로 안내한다. 051)853-2021

氣『로박요법』효과가 뛰어납니다!!

반도체 칩을 이용한 새로운 氣 요법

■ 현직의사가 개발하였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단기간 효능 확인

■ 전국병원 한방병원 납품 중

氣는 인체 세포가 전기적 균형을 잃으면 비정상세포가 통증을 유발하는데 음(-)의 氣를 체내에 침투시켜 生氣를 발생,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세포내 응혈을 방출시켜 몸에 氣力과 活力을 넣어 줍니다.

氣로박파스 (1)
종류 : 허리용
수량 : 10개
가격 : 20,000원

氣로박파스 (2)
종류 : 무릎, 기타용
수량 : 10개
가격 : 20,000원

氣메달 (1)
종류 : 건강
수량 : 1개
가격 : 87,000원

氣메달 (2)
종류 : 건강
수량 : 1개
가격 : 130,000원

부착용
종류 : OMC
수량 : 1개
가격 : 24,000원

매트
종류 : 특수매트
수량 : 1개
가격 : 800,000원

종합 세트
가격 : 210,000원

뼈에 좋은
토종 홍화씨
갱년기 골다공증, 연골이 약한 분, 퇴행성 노인분, 기타 뼈가 약하신 분
1달 150g 45,000원

韓國氣研究院 02)455-6944 02)453-5851

슬기샘 慧泉 박물관 건립 기금 마련 불사

석혜천『釋慧泉』
「생사로 만나는 반야심경」저자
- 물이없어도 무지는 인다
- 목탁이야기 배에서 일렁출
- 동일 동문회 회원
- 전통 문화각 연구 소장
- 다담불교 명다선원 운영
- 명상전화 신행상담실장
- 신화명상가, 목관화가
1.백의관전 2.명상전화전
3.무치보살전 4.선 관화전
5.노점담전 6.학변상도전
7.동경도쿄에 초대전
8.동일대전초대작전
- 슬기샘 박물관 건립추진

1. 복덕상학 신선대문상회 복덕인천기원
2. 부부상학 수명장수 부부화합 소원성취기원
3. 사업상학 복덕구족 영업상업 사업상회
4. 삼무선학 마사 마왕 인천문왕기원
5. 기내백신불접치학 업장소멸 불공죽복 무병소멸기원
6. 음향수학 남녀궁합화합 복덕일문기원
7. 재능상학 수명장수재능기원 소원복덕기원
8. 입원상학 학업소원성취 시험합격기원
9. 삼무선학 사업 영예 천복 지덕성취기원
10. 입상재열학 수명 복덕장수 입상복소열원
11. 중상재열학 수명 복덕장수 원만심복소열원
12. 출상재열학 수명복덕장수 출상복소열원
13.병고멸학
14.동심수학
15.질성무학
16.인연성학
17.관재멸학
18.입심동학
19.선정관학
20.무사고학
21.퇴마기학
22.방생원학
23.거복귀학
24.상외50종

- 특별주문제작 연화복덕학 가족원문학을 주문으로 가족수예피라학와수를 정추어 제작해에 드립니다
- 심달마도와 초대달마도 수심달마도 무심달마도 갈입달마도 환탈달마도
- 입월상신월성한호도 호랑이은 옛부터 행운과 시련을 물리치는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식들에는 신선 또는 신선의 시자 혹 도량의 수호를 맡는다
- 천복용신도 무한한 능력에 최한용를 발법을 수호하는 금부중의 하나이며 감상을 돕는다
- 무악천마도 추진력에 상징이며 복원을 주고 악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전함. 악사여래불에 깃린 12 신장중의 하나이다.

봉운불사기획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화동 29번지
전화 032)884-0332,
FAX 032)884-0333
온라인 국민은행 예금주 전수회
175-25-0001-318
위 변상도는 지자체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한 복사 도용 판매를 금합니다.

○위 수익금은 슬기샘 박물관 건립 기금에 쓰여집니다.

○ 위 학 변상도 및 수신도는 혜천스님이 참선기도 수행후 직접 그린 작품으로서 다소 규격이 변형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鶴)이란 옛부터 자태가 청초하고 고귀하여 신성한 새로 여겨오며 천년만에 푸른색으로 변하여 청학(靑鶴)이 되고 다시 천년이 되면 검은 색으로 변하며 현학(玄鶴)이 되는 장생불사의 새로 알려져 있다 불가에서는 성인마나 보살의 화신으로서 악을 구축하고 선으로 인도하는 이적을 베푸는 존재로 표상되었으며 주로 법당 안천장이나 벽면 높은 곳에서 하늘을 날며 부처님 신변에 접귀가 나타나지 않게 늘 지키고 있다

鶴愛相圖 학변상도 (지역별 각 사암 특별 보급처 문의 요망)

■ 학(鶴)이라는 특수적인 대상에서 기호의 문자화로 변형되어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려는 신학(神鶴)로서 일명 학(鶴)변상도(愛相圖)라고 이름 하는 것이다. 학(鶴)이 주는 주권적인 삶에 소망을 이루어주며 연관작으로 자신에게 업장(業障)을 멸(滅)해 줄 수 있다는 상징의 본질인 것이다. 따라서 선, 시법적(禪, 詩法)에서 보면 전각상형문자(篆刻象形文字)의 연예라고도 한다